‘반려동물 천도재’ 니즈 확산…‘펫 포교’로 이어지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펫로스 증후군 반려인 증가
봉은사 등 천도재 요청 늘어
‘축생법당’ 조성한 천룡정사
심곡암 첫 ‘동식물 천도재’
원경 스님 “정례화할 계획”
“시대적 니즈 반영 고민을”


서울 성북구 심곡암은 1월 28일 경내 대웅전서 ‘일체 동식물 합동 천도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지 원경 스님의 집전으로 천도의식이 봉행되는 모습.

“애견애묘 동식물등/ 유연무연 일체중생/ 지심소청 하옵나니/ 오늘법연 인연지어/ 이고득락 하옵기를/ 지심발원 하옵나니…”

서울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심곡암 대웅전에 반려동물과 인간의 탐욕에 의해 스러져간 동식물 영가의 천도 발원이 울려 퍼졌다. 서울 성북구 심곡암(주지 원경 스님)은 1월 28일 ‘일체 동식물 합동 천도재’를 봉행했다.

젊었을 적 취미로 사냥을 다녔던 김건화 심곡암 신도회장의 참회 발원에서 시작된 이날 동식물 합동 천도재에서 사부대중은 애견·애묘 등 반려동물과 일체 동식물 영가의 천도를 기원했다.

이날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은 반려동물 천도재를 정례화할 계획을 밝혔다. 원경 스님은 “최근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영가에게 경건하게 예를 갖춰 이고득락하게 하는 천도재를 봉행함으로서 남은 사람에게는 위안을, 동물 영가에겐 왕생극락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반려인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상실감과 슬픔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펫로스증후군(Pet loss Syndrome)’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펫로스증후군’이 6개월 이상 지속될 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조언한다. 자칫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밝힌 ‘반려동물 천도재 정례화 계획’도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천도재를 처음 지낸 곳은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 스님)다. 주지 현종 스님은 1999년 현덕사를 창건하고 첫 백중을 준비하던 중 어린 시절 장난을 치다가 빨랫줄에 앉은 새끼 제비를 죽인 것이 마음에 걸려 천도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사람으로 다친 영혼, 사람으로 위로하다’라는 주제의 동식물 천도재로 거듭났다. 불교의 천도재에는 “세상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설하신 부처님의 ‘일체중생 개유불성’ 가르침을 따라 인간의 탐욕으로 목숨을 잃은 동물과 식물을 위로하고 그들이 육도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이 같은 불교 생명사상은 반려인들을 사찰로 불러 모으고 있다.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천도재를 지내주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의 경우 자신의 반려동물의 천도재를 지내달라는 신도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주지 덕일 스님)는 지난해 백중 5재 당시 ‘반려동물 천도 발원 기도’를 진행했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출가 전 수의사였던 봉은사 포교국장 공일 스님은 “반려동물 천도재를 지내달라는 신도들의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사람과 같이 천도재를 지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중들의 요구들이 있는 만큼 도심 사찰 등에서는 반려동물 천도 전용 법당이나 공간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반려동물 천도 법당을 조성한 사찰도 있다. 영천 팔공산 천룡정사(주지 지덕 스님)는 지난 2019년 5월 경내에 ‘축생법당’을 조성하고 낙성식을 봉행했다. 천룡정사 주지 지덕 스님은 “동물과 인간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반려동물 천도재를 봉행했는데, 기존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전용 천도 법당인 ‘축생법당’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천룡정사에서 반려동물 천도재를 올리기 위해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사찰을 찾는다. 인천에서 왕복 8시간이 소요됨에도 반려견을 위해 7재를 모두 참석한 견주도 있었다. 지난해만 천룡정사에서는 반려동물 25마리의 천도재를 봉행했고, 최근에는 반려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천도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1월에만 4마리의 천도재를 올렸다.

지덕 스님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다. 그러다보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염불하며 애도를 표하면 나 역시 울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천도재를 비롯한 여러 ‘펫케어’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교 포교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최근 천도재 요구 증가 등은 대중들의 니즈라고 볼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 천도재 등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과 어떻게 연관되는 살피고, 이에 대해 포교적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 봄, ‘생활 참선’ 배우며 행복충전 해볼까

불교인재원 ‘영원한 행복, 생활참선 명상’ 개강

입문과정 · 심화 · 전문 · 지도자
요가명상 건강 프로그램 운영도

부처님 법으로 인재 양성 활동을 펼쳐 온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사진)이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스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생활참선 명상’ 봄 학기 강좌를 개강한다.

봄 생활참선 강좌는 입문코스와 각 2년제 수행코스인 심화반과 전문반, 그리고 지도자반까지 동시에 온라인으로 개강하며 줌과 네이버 생활참선 카페(https://cafe.naver.com/jungdo2018)를 통해 진행된다.

3월 5일에 개강하는 온라인 19기 입문과정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8주 동안 진행된다. 불교와 참선 이론을 공부해 정견을 세우고 하루 5분 좌선을 생활화(나를 바로 보는 하루 5분 선명상, 나바오)하며 일상에서 지혜롭고 행복한 삶으로 안내한다. 온라인 공부 중 5주 차에는 해인사 백련암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며 원택 스님께 성철 스님의 삼서근 화두를 받아 참선한다.

이번 봄 학기에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공부를 확대한다. 2기 입문코스는 3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서울 서초 대성사에서 열린다. 19기 입문코스는 3월 6일 저녁 7시 서울 종로 열린선원(두산위브 836호)에서 개강한다. 의정부 연꽃명상센터(가능동 세광빌딩)에서도 생활참선 명상 입문과정 1기가 3월 7일 저녁 7시 개강한다.

생활참선 심화반은 입문코스 수료자가 공부하는 2년제 온라인 참선 심화코스다. 3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개강하며 성철 스님의 한글 법어집 〈자기를 바로 봅시다〉와 화두참선 지침서 〈참선경어〉를 공부한다.

생활참선 전문반은 심화코스 수료자가 공부하는 2년제 참선 전문가과정이다. 3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진행되며 한국 간화선의 바른 길을 제시한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를 교재로 한다.

생활참선 지도자반은 전문코스 수료자가 공부하는 2년제 참선 지도자 과정이다.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진행되며 한국 간화선사인 나옹 스님의 〈나옹록〉과 조주 스님의 법어집 〈조주록〉, ‘매일매일 좋은날’의 운문 스님 법어집 〈운문록〉을 공부한다. 아울러 전 과정 합동으로 4월 20일 1박 2일 수덕사, 장곡사, 마곡사를 순례하며 신심과 발심을 다진다.

서초 대성사와 공동으로 불교대학 봄학기도 3월 5일 개강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열리는 대성사 불교대학은 〈고우 스님 육조단경 강설〉과 〈성철스님 신심명 · 증도가 강설〉을 교재로 박희승 교수와 함께 공부한다.

불교인재원은 심신의 건강을 돕는 요가명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성사에서 3월 9일 토요일에 개강하며, 종로 열린선원에서는 3월 7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강한다.

엄상호 이사장은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와 협력, 국가 등록 민간자격증인 명상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선명상 대중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010-4050-5969

임은호 기자

달마조직위, 청소년올림픽 선수 지원

호산 스님, 웰리힐리파크 찾아
이채운 · 이지오 선수 등 격려



달마조직위원회 위원장 호산 스님과 스노보드 선수들.

조계종 달마조직위원회(위원장 호산 스님)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달마조직위원회 위원장 호산 스님은 1월 29일 횡성 웰리힐리파크를 찾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스노보드 출전선수들에게 격려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호산 스님은 “이번 올림픽 스노보드 출전선수 모두 달마배 출신이다. 이채운 선수는 최근 남자 슬로프스타일에서 우승을 차지해 직접 응원하고자 왔다”며 “앞으로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해 부상 없이 준비한 것들을 잘 펼쳐달라”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한국 스노보드는 달마조직위원회 관심과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선수들은 2026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서 나라를 빛낼 보배들”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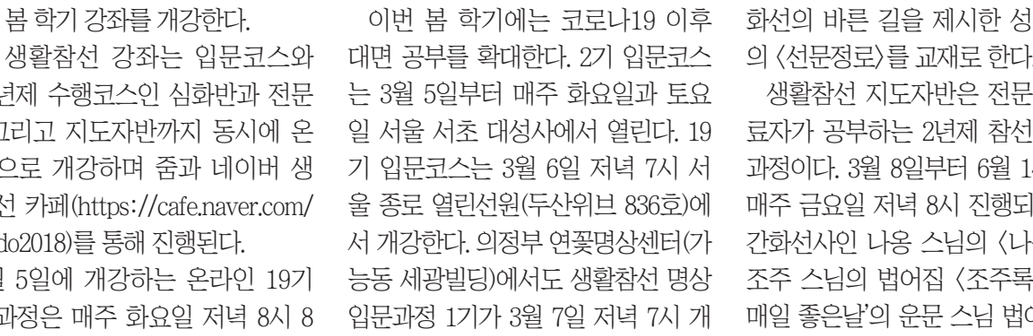
이어 호산 스님은 불자로서 꾸준히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며 불심을 다진 선수들에게 옴자가 새겨진 목걸이를 선물했다. 보관 스님도 선수들 손목에 단주를 채워주며 좋은 기량을 펼칠 것을 축원했다. 이에 이채운 선수는 앞선 대회에서 수상한 금메달을 호산 스님 목에 걸어주며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輦(연) 한 올 한 올의 정성이 명품을 만듭니다. (번)幡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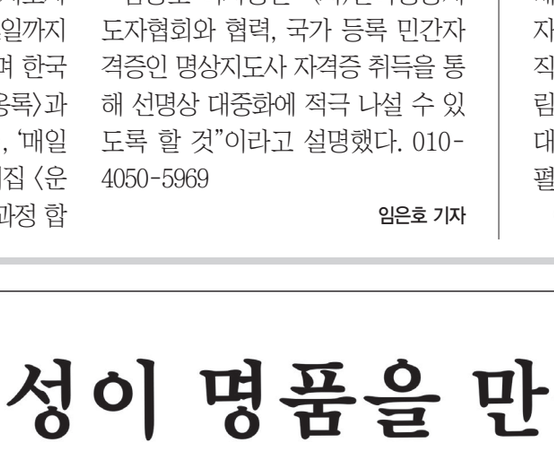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규격 : 480x2000

'공단위에 수놓은 정통번'

여러 종류의 번은 있어도
금과 은의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한 번 구입 하시면 오래도록 장엄하고
여법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3단 조립식
*몸체길이
가로 650x세로 1100
*가볍습니다. 20kg
※소형 연도 있습니다.


일산대
(적색, 황금색)


시왕번 규격 : 180x1400


칠여래번 규격 : 350x1400


조계사 극락전

한국불교 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전화번호:010-8441-6814